

영·호남학생 '꿈과 우정의 약속카드' 20년 만에 열다

전남-경남 교육청, 1999년 당시 묻은 타임캡슐 동시 개봉



“저는 수확을 좋아했습니다. 친구들이 저의 도움으로 모르는 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아이들이 꿈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목포용해초등학교 최현일(32, 1999년 법성포초등학교 6학년 학생) 교사는 20년 전 묻은 타임캡슐, '꿈과 우정의 약속카드'에 적은 꿈(의사)과는 달리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최 교사는 당시 약속카드의 20년 후 나의 모습란에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보람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썼다. 법성포초등학교 6학년 2반 최현일 학생은 그러나, 의사 대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 교사의 20년 성장 스토리는 영상 다큐로 만들어져 타임캡슐 개봉행사장에서 상영됐다.

지난 17일 담양군 가사문화원 소재 전라남도교육연구원에서는 '영·호남 꿈과 우정의 약속' 타임캡슐 개봉식이 열렸다. 같은 시각 경남 의령 소재 경남학생교육원에서도 20년 전 함께 묻었던 타임캡슐이 열렸다.

이날 개봉된 약속카드는 1999년 5월 26일 전남과 경남의 초등학교 어린이회장 1,072명(전남 559명, 경남 513명)이 묻은 것이다. 이들은 카드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혈액형 자기소개, 장래희망 20년 후의 나의 모습, 경남(전남) 친구에게 바라는 글 등을 B5 크기 용지에 작성한 뒤 코팅했다.

전남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이 카드를 타임캡슐에 봉인해 전남교육연구원과 경남학생교육원(당시 경남덕유교육원 의령분원) 앞마당에 각각 묻었고, 20년 만인 이날 마침내 개봉한 것이다.

전남교육연구원 앞마당 땅 속 깊숙이 묻혀 있다가 20년 만에 빛을 본 559장의 약속카드에는 새천년을 앞둔 전남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현일 교사처럼 의사가 되고 싶다는 아이에서부터 대통령, 축구선수, 아나운서, 과학자, 교사, 대학교수, 법관 검사, 디자이너, 가수 등 다양한 직업을 장래희망으로 올려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대원이 되어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고 싶다”는 아이, “UN사 무총장이 되어 전쟁과 기아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이끌어가고 싶다”는 당찬 꿈을 가진 아이도 있었다.

특히, 이들은 ‘경남 친구에게 바라는 소망’으로 “얼굴도 모르지만 사이좋게 잘 지내자” “어른들이 말하는 지역감정을 우리는 갖지 말자” “이웃처럼 친하게 지내자” 등의 메시지를 담아 영·호남 화합과 우정을 바랐다.

이날 전남교육청 개봉행사는 타임캡슐의 주인공 50여 명(전남 44명, 경남 1명과 가족 등)이 참석해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고 성인이 된 자신의 모습으로 세월의 흐름을 증명해보였다.

장석용 교육감을 비롯한 현 전남교육청 관계자와 경상남도교육청 김상권 학교정책국장과 장학사, 20년 전 타임캡슐 봉인행사를 추진했을 당시의 전라남도교육청 최국인, 최재천 장학사와 전라남

도교육연구원 김한호, 노재찬 교육연구사 등 관계자들도 참석해 뜻깊은 타임캡슐 개봉을 축하했다.

특히, 당시 전남과 경남의 약속카드 주인공인 최현일 군과 심주는 양이 20년 전 만들었던 약속카드를 낭독했고 또 다른 주인공들은 지난 20년 간 살아온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줘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또한, 담양고서중 세로토닌 드림클럽의 타임캡슐 개봉 축하 공연과 광양제철남초등학교 및 진주주야초등학교 합창단이 “하나라는 아름다운 느낌” ‘하계장터’ 등의 노래로 영·호남 화합 합창곡을 불러 분위기를 돋웠다.

이날 개봉식은 전남교육연구원 앞마당에서 타임캡슐을 발굴한 뒤 200강당으로 옮겨 축하 공연과 경과보고, 교육감 인사말, 내빈 축사, 타임캡슐 개봉, 영·호남 화합 합창 공연,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장석용 전남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39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전남과 경남의 청년들이 모여 20년 전 약속된 타임캡슐을 개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상생과 협력으로 편 가르치지 않고 하나의 길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갈 때 대한민국 발전과 민주주의는 꽃 피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김상권 학교정책국장이 대신 읽은 인사말을 통해 “영호남 어린이들이 서로의 꿈과 희망을 나누면서 모두가 손잡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정을 나누는 일이야말로 영호남 화합을 넘어 대한민국의 화합으로 이어지는 발판이다.”며 “앞으로도 영호남의 교육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날 개봉한 타임캡슐과 약속카드를 전남과학교육원에 임시 보관한 뒤 전남교육박물관(가칭, 설립 예정)으로 이관할 계획이며, 표지석은 전남교육연구원에 보관키로 했다.

김정환 기자

민주·인권·평화·나눔 다지는 5월의 달리기

광주극락초 학생들 5월 정신 있는 연극 공연 펼쳐



광주극락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17일 5·18 민주화운동 제39주년을 맞아 ‘5월의 달리기’ 연극 공연을 학교 무대에 올렸다.

1~4학년 동생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공연을 보여주고 민주·인권·

평화·나눔의 정신을 쉽게 풀어 설명해 주기 위해 마련했다. 배우가 된 학생들은 온작품 읽기 활동으로 5월의 달리기(김해원, 푸른순주니어) 책을 읽고 연극으로 각색했다.

공연에 이어 민주·인권·평화·나눔의 색을 나타낸 4가지 재료로

주먹밥 만들기, 전자 염서 쓰기 활동을 진행해 동생들과 5·18 정신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더불어 1~2학년 학생들의 평화를 약속하는 손바닥 도장 찍기, 3학년의 우리가 꿈꾸는 세상’ 비담 그림 그리기, 4학년의 ‘선생님, 광주의 5월을 아세요’, ‘금남로’ 노래와 악기 연주 공연 등 학교 곳곳에서 5·18 정신을 되새기는 다채로운 활동이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활동을 본 김민영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5·18 정신을 배우고 이어가는 모습이 감동적이다”고 말했다. 백해경 교장은 “행사 준비를 위해 담임선생님뿐만 아니라 업무지원팀, 급식실 선생님들까지 머리를 맞대고 손을 거들어 함께 하는 모습에서 5·18 나눔의 정신을 보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범주 학생은 “어떻게 하면 동생들에게 쉽게 5·18을 알려줄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5·18을 더 잘 알게 되었다”며 뿌듯함을 나타냈다.

조인호 기자

순천대 두루미과학예술센터, 프랑스와 국제문화예술 교류 활발

순천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심치남) 두루미과학예술센터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프랑스 낭트시에서 순천대 습지와 흑두루미를 주제로 문화예술 컨퍼런스 프로그램 ‘Printemps Coren Nantes 2019, Conference, Suncheon’을 진행했다.

‘Printemps Coren’의 파트너로 초대된 순천대 두루미과학예술센터와 순천시는 순천의 아름다운 생태와 자연, 도시의 현재와 미래 등 순천민의 생태와 시민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선보였다.

흑두루미에서 영감을 받은 주제로 창작·제작한 음악과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콘텐츠를 융합한 라이브 퍼포먼스를 통해 프랑스 낭트 시민들과의 의미 있는 문화적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순천대 두루미과학예술센터는 순천시와의 협조 아래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순천시는 교육과 문화, 식물 등을 매개로 프랑스 낭트시와 유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전영국 순천대 두루미과학예술센터장(대학원 환경융합예술학과 교수)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순천과 프랑스 낭트 간 창의문화예술 교류의 다리를 잇게 됐다”며 “앞으로 낭트의 창의적인 예술가들과 활발한 협업·창작 활동을 통해 순천 지역 교육의 우수한 생태문화 콘텐츠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대 두루미과학예술센터는 낭트시와의 교류 협력 후속 프로그램으로 환경융합예술학과와 협력을 통해 순천 시민들을 위한 컨퍼런스 형태의 공연을 두 차례 더 펼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역사 속 선현에게 청렴을 배우다”

무안교육지원청, 일반직공무원 청렴문화 체험 연수

무안교육지원청은 17일 관내 유·초·중학교 및 무안교육지원청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전남 장성군 평생교육센터에서 청렴문화 체험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장성 지역이 배출한 청백리인 ‘지지방 송흥’과 ‘이곡 박수량’ 선생의 청렴정신을 받받고 공

무원으로서 바람직한 공직관을 되새기고자 마련되었다.

임근희 청렴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공직의 가치와 청렴’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 하였으며, 청빈(淸貧)의 상징인 박수량 백비 유적지 탐방, 청렴사색 체험을 통해 역사 속 선현의 청백리 생활을 몸소 체험하

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갑갑한 사무실에서 벗어나 탁 트인 공간에서 체험 위주로 진행된 이번 연수가 색다른 경험이었다”면서 “선조들의 청렴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교육지원청은 작년 관내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청렴문화체험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교육공무원 등 소속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렴문화 체험연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